

즉시 보도용

2025년 11월 4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배스 시장: “우리는 계속해서 긴급하게 노숙자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영구적 대응 수단이 마련된 지금, 계속해서 전례 없는 조치 주도할 것...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취임 첫날 노숙자 위기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 선언은 LA시가 계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거 솔루션을 가속화하며,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출범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해 수천 명이 존엄성과 지원을 갖춘 실내 공간으로 이동했다. 또한, 저렴한 주택과 홈리스 지원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1호(ED1)의 시행을 용이하게 했으며, 이는 곧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현재 3만 개 이상의 주택이 ED1 파이프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전달했다.

2025년 11월 4일

LA시의원 여러분께

c/o City Clerk

City Hall, Room 395

지역 비상사태 상태 관련 공지 – 노숙자 위기 (Notice of the Status of Local Emergency -
Homelessness Crisis
(Council File - 22-1545)

존경하는 의장 및 시의원 여러분,

취임 첫날, 저는 홈리스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위기는 악화되어 왔고, 해마다 거리에서 생활하며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앤젤리노들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는 우리에게 기존의 실패한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랜 기간 지속된 노숙자 증가 추세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노숙자 감소를 이루었으며, 거리 홈리스는 17% 감소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은 계약 절차를 가속화하고 Inside Safe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전역에서 거리에서 생활하던 이들을 존엄성과 지원을 갖춘 임시 거처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조례로 제정될 ED1 시행을 용이하게 했으며, 이는 저렴 주택과 노숙자 지원 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것입니다. 현재 3만 개 이상의 주택이 ED1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비상사태는 위기가 지속된다고 해도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사태를 통해 마련된 여러 도구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구축된 만큼, 임시 선언 없이도 긴급 대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리스 문제에 대한 시의 방향이 확실히 새롭게 전환된 지금, 공식적인 비상사태 선언을 종료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긴급성 또한 변함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현장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천막촌과 **RV** 생활자들과 소통하며, **Inside Safe**를 통해 사람들을 실내로 이동시키고, 도시 곳곳의 지역사회를 회복할 것입니다.

추가 권한이 필요해진다면, 저는 언제든지 비상사태 선언을 재발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로스앤젤레스 시민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캐런 배스 시장

###